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9월 8일(월) 제 3166호

대통령 전북 민생행보 언제…방문 시기 촉각

전북 타운홀 미팅 10월 말 가능성
외교 등 일정…9월 방문 어려워
새만금개발·공항·올림픽 유치 등
대통령 '통 큰 결단' 기대감

지난 6월 조기대선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집권 4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시기에 지역은 물론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외교 강행군을 마무리하고 다시 민생행보에 나선 이 대통령.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기업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들었고, 4일에는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민생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또 오는 11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는 등 9월에도 일정이 빠곡해 사실상 타운홀 미팅을 잡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직까지 장관급 인사 등 전체적인 내각구성도 마무리되지 못하는 등 현안도 산적하다.

'전북 타운홀 미팅' 에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집중되고 있지만 일정상 전북 방문은 빨라야 10월 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배적이다.

특히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유엔총회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으로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3째주 화요일부터 1주일 간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삼중 소외론, 지역 경기 역대 최악, 인구 감소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정부 차원의 해법이 절실하지만 대통령의 방문은 요원하기만 것이 현실이다.

용산 대통령실도 최근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향을 천명한만큼 도민들의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은 6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에서 진행된 가운데 전북은 아직까지 미동이 없다.

통상 대통령(v)의 지역 방문시 최소 2주 전 대통령 경호처에서 미리 내려와 방문 장소와 동선, 주변환경 등을 체크하는 것이 관례다. 또 경찰청 본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미리 사전 경호협조지시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타운홀 미팅시 새만금 내부개발, 국제공항, 전주 올림픽 유치, 금융중심지, 공공의대 설립 제2경찰학교 유치 등에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주독서대전 찾은 문재인 前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열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북마켓 부스를 순회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 회동

장동혁 국힘 대표와 단독 만남도
의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회담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다음주 월요일인 8일 오후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대통령과 강훈식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양당 대표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은 사전 의제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회동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회동에 대해서 단독회담이 없으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완-전 통합 찬성 컬러링 홍보에 권요안 도의원 "관권 행정" 규탄

"도청 직원 대상 강제 홍보" 지적
"도 예산으로 공정·중립 훼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전북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번 컬러링 서비스는 행정력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이며, 도민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권요안 도의원

권요안 의원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2026 새만금 사업 예산 1조원대 반영…개발 본궤도

정부안 31개 사업 1조 455억 확보
수질개선·신항만·교통 SOC '탄력'
신규사업 포함 6년간 7조 집중 투자

2026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대폭 반영, 새만금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새만금 사업 31건,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부처 예산 편성액(7,429억 원)보다 3,026억원 증가한 규모로 부처 예산 편성액 대비 정부 예산안 반영률도 전년도 99.4%에서 140.7%로 상승했다.

전체 31개 사업 중 주요 성과 사업인 계속사업 7개는 총 사업비 5조 5282억 원 중 6,351억 원이 확보됐으며, 신규사업 5개는 총사업비 1조 8332억 원 중 134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비(5억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85억원) ▲새만금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등 모니터링(4억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비(3억원) 등이다.

수질환경 개선과 2026년 신항만 개항 준비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2년 이상 지연됐던 주요 개발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1,760억원) ▲새만금 수목원(871억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35억원) 등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 사업은 요구액 전액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63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사업(705억원) ▲새만금 인입철도(150억원) 등으로 장기간 지체된 새만금 숙원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반영된 12개 핵심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6년간 총 7조 3,614억 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자된다.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은 첨단산업과 친환경 인프라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변모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도 기대된다.

전북도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일선 시군과 협력해 부처, 기재부를 방문하며 예산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타당성을 강조해 새만금 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장정철 기자

조국당 성추행 논란에 뒷북 사과 "강미정 대변인 등 피해자에 위로"

김선민 권한대행, 기자회견 통해

조국혁신당이 5일 '강미정 대변인의 성추행 및 2차 가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전날과 달리 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뒷북 사과를 했다.

김선민 조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미정 대변인

<2면에서 계속>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전북도, 추석 앞두고 원산지 위반 무관용 집중 단속

대형마트·판매업소 60곳 점검
사과·배·축산물 등 주요 품목 단속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1억 벌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소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배 등 과일류,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고사리 등 산채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행위에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전북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다"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전국 최초 자원순환형 환경축제 모델 제시

김제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
새보로미 축제 연계 진행 '성황'
'일회용품 없는 전북' 실천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자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

자원순환의 날은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이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 새로보미 축제와 연계해 진행돼 전국 최초의 자원순환형 환경축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을 열고 도민 인식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제시와 협력해 이번 행사 유치에 도전했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념식은 식전 문화공연과 자원순환 캠페인 영상으로 시작해 포상 수여, 환영사, 축사, 기념사 등 공식 절차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과제를 공유했다.

기념식 외에도 ▲자원순환 체험부스, ▲친환경 제품 전시, ▲업사이클링 체험, ▲어린이 그림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30년 특별전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 안내행사도 마련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전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30년 전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시작된 자원순환의 여정을, 이제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확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김제시>

또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일회용품 없는 전북은 행정의 선언이 아니라 도민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전북도가 전국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실천형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장정철 기자

道 전주올림픽 범도민유치추진위, 문화관광 분과회의 개최

한옥마을·판소리 등 지역자원 활용
도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문화관광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예술계, 관광 분야, 학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전북이 지닌 전통문화와 음식, 관광 자원을 국제무대에서 차별화된 강점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또 ▲전북 문화의 글로벌 확산 전략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범도민 참여와 홍보 캠페인 등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에 맞는 관광 인프라 확충,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추진 방안이 활발히 제안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는 한옥마을, 판소리, 비빔밥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올림픽과 연결한다면 전북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문화관광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서배원 전북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 과장은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성원이 모일 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꿈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김정기 도의원, 한빛원전 주변 안전범위 확대 촉구

5km→30km 임시회서 요구
정부 시행령안 5km 제한 논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김정기 도의원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닌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기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 ·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염영선 도의원, 독립기념관장 파면 결의안 발의

"김형석 관장 역사 인식 의문"
광복절 행사 취소 등 논란 지적
"독립기념관 명예 실추시켜"

염영선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국당, 성비위 사건 철저 조사·근본 쇄신 약속

당내 성 비위·2차 가해 지적 수용
"전 대표와 당무 논의 없어" 선 그어

<1면에서 이어서>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 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조국 전 대표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전 대표와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성 비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의 2차 가해 발언도 폭로했었다. /서울=김영묵기자

순창군 고시 제2025-807호

치천 하천구역 변경·폐지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열람 공고

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을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순창군수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치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규 모 : 지방하천 계획 연장 L=17.00km

하천명	하천구역 지정(변경) 구간			비고
	기 점	종 점	거리(km)	
치 천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산173-4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3번지선 섬진강(국가) 합류점	17.00	

○ 공람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 일부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지정 관련 지형도면 및 도서

2. 공람장소 및 의견청취 기간
○ 공람기간 : 2025년 9월 8일 ~ 2025년 9월 22일 까지(공람일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순창군 안전재난과(☎063-650-1874) 및 순창군 구림면 행정복지센터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의견청취 기간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안전재난과(☎063-650-1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시 관련 국비 21조 반영

3년 연속 2조 원 돌파 '청신호' 신규사업 396억 원 반영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조 원 대의 전주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대비 1262억(6.2%) 늘어난 총 2조 1630억 원 정도 규모의 전주시 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대변혁을 통한 새로운 전주'에 한 발 더 나아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정치권과 탄탄한 삼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단계별 시기적절한 관련 부처 방문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39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예산이 포함됐다.

이들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연차적으로 총 5544억 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시는 전주 대변혁을 뒷받침할 단단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산업 분야 예산으로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200억 원) △AI 신뢰성 검증 허브센터 구축(10억 원) △습식파우더 기반 프리프레그 공정기반 구축(28억 원) △친환경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열가소성 복합재 실증기반 구축(23억 원)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또한 시는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2억 원) 선정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등을 통해 100만 광역·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도 챙겼다.

여기에 정부예산에는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주부성 복원 정비(3억 원)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2.5억 원) △AI 기반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10억 원) 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시티 조성(70억 원)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구축(4억 원) 등의 신규사업 예산과 더불어 △전주천 국가하천 정비(20억 원) △낙수정·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13억 원)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7억 원) 등 다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안전과 돌봄이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132.1억 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73억 원)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90억 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83억 원)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258억 원)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구축(21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1억 원) 등 분야별 주요 계속사업의 국가 예산도 계획대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정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과 예결위 의원들에 지원요청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전북연고 의원실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이 추가 반영·증액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1차 신청 오는 12일 마감 미신청시 혜택 소멸

전주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주지역 총 지급대상자 62만 4527명 중 61만 6537명이 신청해 약 98.7%의 신청이 완료됐다. 총지급액은 약 1231억 원이다. 이번 1차 신청을 통해 일반시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계층 33만 원, 기초수급자 43만 원이 각각 지급됐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12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준일(6월 18일) 이후 출생이나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새롭게 지급 요건에 포함된 경우에는 1차분 지급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오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준일 이후 신규로 취약계층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한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금액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 동 전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 접수와 카드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준비 중이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승원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력 수단"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소년 통학길 더 가볍게 … 통학비 지원 확대

1인당 연 25만 5000원 지원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영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00명에게 통학비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중 통학 거리가 2㎞ 이상이며, 등하교를 위해 대중교통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재단은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학생 1인당 12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지난 8월부터 인상된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을 반영해 지원액을 13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총 25만 5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등교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554명의 청소년에게 통학비를 지원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교통비 부담 때문에 학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버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통학비 지원이 학생과 가정에 확실한 보탬이 되고, 통학길이 곧 꿈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공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

5일 업무공유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34개 동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5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남부지사 관계자와 예수병원 관계자, 34개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차 의료-돌봄 통합지원 업무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 동향 및 사업별 추진사항 공유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남부지사의 건보공단 협조 사항 안내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본부의 '노인 암환자 주요 위험증상 및 대처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 등으로 꾸며졌다.

또한 34개 동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를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노인 중심으로 제공되던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포함해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 2월부터는 통합판정조사가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통합판정조사는 욕구 조사를 통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하고, 요양병원·장기요양·전문의료·지자체돌봄 4가지 영역 중 대상자에게 어느 서비스가 가장 잘 맞는지 가려낼 수 있는 판정 체계다.

시는 앞으로도 돌봄 공백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 추진을 위해 의료·돌봄 유관기관과 정기적 업무 공유 간담회를 개최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상호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전달 중심의 교육보다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할 계획"이라며 "통합지원 추진체계가 견고해질수록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공유재산 담당자 실무 교육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35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 강사가 법령과 제도,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실무 현장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관련 사례 및 질의응답 등이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지선 전주시 회계과장은 "전주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산의 활용 방안 및 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민원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35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주시>

/정소민 기자

전주시, 해외 연수생들에 감염병 대응 노하우 공유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진행

미래 감염병 전문가를 꿈꾸는 13개 국가의 연수생들이 전주시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노하우를 배웠다. 전주시는 5일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전문가과정 연수생들이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를 방문해 감염병 관리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주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낸 고(故)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2007년 개설된 해외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문은 9주간 진행되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전문가과정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13개국 33명의 보건의료인력 연수생들은 감염병 대응 우수보건소인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연수생들은 전주시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감염병 대응 경험과 주요 사례 등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방문이 각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세계적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건지산숲속도서관,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자연의 소리' 주제

전주시는 오는 13일과 27일 이틀간 건지산숲속도서관에서 도심 속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오는 13일 '자연의 소리로 자연을 배우다' 프로그램에서는 양경모 에코샵 홀씨 대표가 초청돼 숲속에서 들을 수 있는 새와 곤충, 바람과 비의 소리를 주제로 △청각을 깨우는 귀열기(Ear cleaning) 실습 △새·곤충·개구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 탐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소리풍경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상 속 소음과는 다른 자연의 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어 오는 27일 진행되는 '여기는 건지숲!' 프로그램에서는 송현주 놀터 대표와 최경호 숲 해설가가 △싱잉볼 명상 △맨발 걷기 △우드버닝 체험 등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건지산숲속도서관은 전주시민들이 자연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도서관으로 자연과 지식의 만남을 통해 '도심 속 힐링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숲해설 및 자연 속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건지산숲속도서관 위치와 운영시간,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완주소방서, 재난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전주시 완주소방서는 지난 5일 봉동중앙교회에서 '2025년 하반기 첫 재난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충남 금산군 남동쪽 3km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봉동중앙교회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지진·건물붕괴·화재·다수사상자 구급 대응을 모두 포함한 종합훈련으로, 하반기 전북소방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다중이 모이는 종교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 훈련으로, 교회 특유의 건물 구조와 인파 밀집 상황을 반영해 더욱 현실적인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다.

훈련에는 총 197명의 인원과 39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유관기관 간 협업과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완주소방서를 비롯해 전북119특수대응단,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제9585부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완주군보건소와 원광대학교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함께해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점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전북도, 금고 선정 공고 유치전 '치열'

농협·전북은행 2파전 시중은행 참여 열려있어 11월 말경 계약 전망

전북도가 10조원 대 도 살림을 맡을 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예고했다.

지난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금고 운영 약정 기간이 올 연말 마무리돼 차기 금고지기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달 말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금고는 1, 2금고로 나눠 8조7천732억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2금고는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1조9천547억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공포하고 사실상 차기 도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이용편의성 항목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계획 등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등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점수를 가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 평가시 도내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됐던 평가범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재편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도내 경제제에서는 서울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의 참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의 2파전 구도 속에서 시중은행의 제3자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올 연말 도금고 유치전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금융권은 "도 금고 선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11월 말경 계약이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정철 기자

농진청,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성평등주간 국무총리 표창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308개 기관(중앙 48,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 시도교육청 17)을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곳을 비롯해 우수사례 등 총 29건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지도력(리더십)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에 부합한 양성평등 행정을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여성농업인의 체력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와 편의 장비를 개발, 농촌을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자동화 기술 접목 무인(드론) 살포기, 작업자 추종 로봇, 온열질환 위험 알림 장치, 중량물 무게 반응 자동 높이 조절 운반대차 같은 장비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농작업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촌진흥청은 그간 농업·농촌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양성평등 문화를 더욱 깊이 뿌리내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LX공간정보아카데미, 최우수 훈련기관 7년 연속 수상

국내 최고 공간정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성과 인정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박신종)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현장 맞춤형 디지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4일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 오브 챔프 시상식'에서 7년 연속 최우수(S등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훈련 인프라, 협약기업 관리, 훈련참여 지원을 비롯해 사업수행 역량, 사업실적, 예산지원 규모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올해 공간정보 분야 재직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재직자 향상 과정으로 오픈소스 GIS 교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성 및 드론 영상 등 27개의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 중이다.

해당 과정은 공간정보 및 프로그래밍 실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양성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중 평균 97%가 공간정보 관련 업계에 취업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 박신종 원장은 "LX공간정보아카데미의 7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은 기업과 교육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위해 현장 맞춤형 공간정보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2014년 설립, 현재는 구로구 구로동에서 운영 중이다.

/정소민 기자

LX국토정보교육원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현장 맞춤형 디지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제4회 농업 연구개발 기술혁신 콘서트' 성황

소비자 건강·환경 등 고려 식품 소비 경향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에서 온 식탁, 대체식품'이란 주제로 '제4회 농업 R&D 기술혁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대체육 산업을 이끌어가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산업-소비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1부에는 △식물성 대체육 제조 기술의 현재와 미래(고려대 한재준 교수) △배양육 기술 현황 및 전망(전북대 최현우 교수) △고수분 압출기술로 식물성 대체육 혁신을 선도하다(수지스링크 이채진 연구소장) 등 최신 대체식품 제조의 과학적 원리와 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기조 강연이 있었다.

2부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참여해 재조합 단백질의 대체식품 가능성과 기능성 콩, 식용곤충, 버섯자원의 소재화, 단백질 추출장치의 미래와 배양육 품질 평가 등을 내용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화,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대체식품 연구 흐름을 읽고, 소비자 건강과 환경,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식품 소비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대체식품은 더 이상 미래의 선택이 아닌 인류의 지속 가능한 식탁을 위한 필수자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대체식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망(네트워크)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에서 온 식탁, 대체식품'이란 주제로 '제4회 농업 R&D 기술혁신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대회' 성료

전북 농생명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비전을 다졌다.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려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관계자, 최흥식 중앙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이 함께했다.

둘째 날 열린 기념식은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우수후계농업인 도지사 표창 4점과 장관상·농진청장상 등 유공자 시상 △LS엘트론-한농연 상생협약 등 이어졌다. 아울러 첨단 농기계 전시, 명랑운동회, '녹두장군 정읍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회원들의 참여 열기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농업의 혁신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온 한국후계농업인경영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미래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육성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등 농정 대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LX공사, '전북 청렴누리문화제' 참여 청렴문화 전파

11개 공공기관 등 참석 부패척결·윤리의식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 상임감사 이태용)가 지난 4일 전북 익산역에서 열린 '전북 청렴누리문화제'에 참여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북 청렴누리문화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전북 청렴클러스터협회 소속 11개 공공기관이 청렴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전북 공공기관의 청렴의지 전파를 위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및 청렴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주요 행사로는 청렴 붓글씨 캘리그라피, 청렴 선언 서명식, 기관별 슬로건 우수작 전시, 청렴 2행시 및 청렴돌림판, 청렴행사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더불어 LX공사는 '청렴누리문화제' 행사에 맞춰 임직원의 청렴의지 강화를 위해 '청春데이-청(淸)렴에 봄(春)이 온다'는 직장 내부 캠페인도 벌였다.

이번 내부 캠페인은 청렴 자가진단 및 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로 진단된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부패척결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꾸미기 위해 진행됐다.

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청렴이 요구되는 만큼 LX공사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청렴누리문화제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청렴클러스터협의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4일 전북 익산역에서 열린 '전북 청렴누리문화제'에 참여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지역 공간개선 사업 '호평'

재능기부 선순환

매년 지역 취약지역 및 가구의 공간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가 올해 역시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주택 2곳과 경로당 1곳에 대한 공간개선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다.

2023년과 지난해에 걸쳐 청소년 그룹홈과 노인가구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실질적 공간개선을 수행했다. 대학의 인·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와 학생들의 현장실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 역시 주거환경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지역 경로당인 '삼우경로당'을 비롯한 취약 노인가구 주택 2곳을 선정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 공간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위생 취약,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장미선 전북대 주거환경학과장은 "이번 공간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체득하는 값진 기회"라며 "대학과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공헌이 가능하도록 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앞두고 '총장 사임'

권수태 교육부총장 직무대행 선임…학교 구성원 '이사회 책임론' 퍼져

전주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앞두고 박진배 총장이 사임했다.

지난 5일 전주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임시 이사회를 통해 '박진배 총장 면직 및 총장 직무대행 선임'건을 심의한 결과, 박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 권수태 교육부총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진배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학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 법인이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을 스스로 가로막고, 오히려 멀어지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총장은 "학교 법인 신동아학원 측이 글로컬대학의 필수 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반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공문을 보내 이런 내용을 알렸다"는 주장이다. 2022년 2월 취임한 박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전주대는 호원대와 연합 형태로 지난 5월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되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고, 글로컬대학 사업 종료 후 스타센터를 전북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동아학원 측은 정관 개정 등을 수용하면 이사회 권한 훼손이 우려되고, 기능도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다.

정관 개정이 부결되면서 전주대 내부에선 '이사회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대 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스타센터 기부채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합리적 의사 도출 과정 없이 찬반 선택의 문제로 끌고 간 총장과 본부의 대처는 아쉽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경제적 기여를 거의 한 적이 없는 법인이 전주대의 자구 몸부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좌절시켰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전주대 직원노조도 "입시 모집 불이익과 대내외 인지도 추락 등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면 이사회의 결정은 '해교 행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대 A 학생은 "2천억원이 지원되는 기회를 이사회가 막은 것은 학교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다"며 "사실상 글로컬대학에 떨어진 학교들은 10년 뒤엔 전부 통합되거나 폐교할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전주대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주대-호원대는 교육부 대면 평가를 마치고 이달 중순 예정된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면 정부에서 1000억원, 전북도 등 지자체에서 1050억원을 지원받아 총 2050억원을 받게 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편성 도민 의견 적극 반영

독서인문교육·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총 1,994명이 참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772명에 비해 222명 증가한 것으로, 학부모 748명(37.5%), 교직원 451명(22.6%), 도민 110명(5.5%), 학생 685명(34.4%)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의견서 제출과 설문조사를 병행했으며, 의견제출의 경우 진로교육 13건, 예술교육 10건, 학력신장 10건 등 총 294건이 제출됐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의견 중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에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투자 대상 사업과 각 정책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전북교육 기본방향 중 확대 지원해야 할 분야로 학력신장(28.5%), 안전한 학교(27.9%), 책임교육(10.4%)을 꼽았다.

또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중 확대 지원해야할 사업으로는 독서인문교육(28.4%), 수업혁신(27.9%), 교과학습 강화(13.3%)를 선호했다.

분야별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인문독서교육에서는 톡서·토론·글쓰기 교육 강화(26.2%) △수업혁신에서는 개념기반탐구수업(35.9%) △진로진학교육에서는 전문직업군 진로 멘트 지원(23.5%) 등을 선택했다.

학생 대상 설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은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육 분야로 진로진학교육(23.1%)을 꼽았고, 이어 예체능 교육(22.4%), 외국어 교육 등으로 답했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문독서교육, 수업혁신, 진로직업, 예체능 교육 등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 1,070명에 총 3억4천여만 원 지급

초·중·고·특수학생 선발 발전 가능성 독려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하 사랑의장학회)는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은 학업우수장학생, 꿈키움장학생, 재능우수장학생 등 3개 분야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생 1,070명을 선발, 총 3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업우수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발전 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해 1·2차로 선발, 9월과 12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500여 명에게 5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총 250명이 참여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유다미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기뻤다. 제 노력을 믿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학교 수업과 실습에 최선을 다해서 꼭 꿈을 이루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나선다

사용 유도·이용 활성화 19일까지 '알리미'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누리카드 도내 사용을 유도하고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알리미' 2차 이벤트를 오늘부터 19일까지 12일 간 운영한다.

'알리미'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의 도내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여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이며, 총 40명의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첨해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카드 사용 영수증을 네이버 폼(naver.me/FLeEeC0y)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활동 인증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총 40명의 당첨자 중 5명은 활동 인증사진을 제출한 참여자 중에서 우선 선정된다.

지난 6월에 열린 1차 이벤트에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1,106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인지도 제고 및 홍보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이번 이벤트에 이어 10월과 11월에도 추가 이벤트를 개최해 연중 총 4회에 걸쳐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도내 약 14만 명에게 1인당 14만 원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는 11월 28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체육회, 선수들 진로문제 적극 나서

은퇴 후 채용 문 확대·개방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육영재선발대회, 체육역사기념관 등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체육회가 전북 체육을 빛낸 선수들의 진로문제에 적극 나선다.

지난 5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제14차 이사회를 열고 각종 보고 사항과 심의·의결사항 등을 처리했다.

이날 심의·의결사항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특별채용(경력경쟁) 신규 임용에 대한 자격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도체육회는 신규특별채용 자격기준 7급 경력에 △올림픽대회·아시안경기대회·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를 추가했다.

단 대회 출전 및 입상 당시 전북 팀에 소속 돼 있어야 한다.

8급 경력 자격기준에도 전북 출신으로 도내 중·고교, 대학교,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에서 10년 이상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한 자를 추가했다.

이 역시 전북이 아닌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도 체육회가 전북을 빛낸 선수들이 은퇴 후 마땅한 진로를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채용 문을 확대·개방한 것이다.

이에 도 체육회가 채용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 안건은 이사회에서도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박성현 이사(전북도청 양궁감독·올림픽금메달리스트)는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의 진로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임미경 부회장(익산병원 행정처장·올림픽금메달리스트)도 "어쩔 수 없이 전북을 떠나는 선수들을 보며 선배 체육인으로서 안타까웠는 데 너무나 좋은 안건이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현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좋은 훈련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을 위해 앞으로도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북도의회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익산시립무용단, 국립정동극장 이어 10월 국립극장 무대 올라

익산시립무용단의 고품격 공연이 수도권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립무용단이 이달 국립정동극장에 이어 10월에는 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백제왕도 익산을 알린다.

두 공연은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높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용단은 오는 19~20일 서울 국립정동극장의 초청을 받아 전통춤의 가치를 증명하는 창작무용 공연 '환생(幻生)-시크릿(SECRET) 외전(外傳)'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익산시립무용단이 2023년 발표한 '시크릿(SECRET)'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처음 선보였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국무용과 세계 문학의 만남으로 평가받는다.

이어 익산시립무용단은 오는 10월 31일 국립극장의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에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무용단은 궁중무용의 기품과 우리 춤의 흥을 제대로 보여주는 '태평천무(太平天舞)'를 통해 수도권 관객들에게 익산시립무용단의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이번 수도권 공연을 통해 시립무용단의 기량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익산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민 참여형 소통의 장 정책 토크콘서트 13일 개최

시민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소통 무대, 군산시의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가 개최된다.

13일 오후 3시,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사전접수 등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석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행방식도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답하는 참여형 소통 무대로 이뤄진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군산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시도한다.

행사는 청년 패널의 진행으로 △식전 공연 △온·오프라인 자유질문 △즉석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군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 창업가 맞춤형 컨설팅 성료…13명 전원 수료

정읍시는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다.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능력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문 강사진의 실무 중심 교육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생 13명 전원이 무사히 수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0,780원 결정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앞장 물가동향·재정 여건·정부 최저임금 등 종합적 검토

군산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10,7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동향·시 재정 여건·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225만 3,020원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급여 환산액인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 더 많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 2,570원보다 10,450원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동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형 농촌유학, 지역소멸 위기 극복 '주목'

2학기 5명 신규 전학 현재 가족 포함 17명 전입

'익산형 농촌유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의 발걸음 하나가 지역학교를 살리고, 가족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올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유학생 5명(가족 포함 12명)을 추가 유치하면서, 현재까지 총 8명의 유학생을 포함해 17명의 가족이 웅포면에 정착했다고 5일 밝혔다.

△폐교 위기 넘긴 작은 학교…절반이 도시 유학생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웅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 16명 중 절반이 유학생으로, 도시 학생들의 전입이 학교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웅포초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농촌유학 덕분에 교실에 웃음이 돌고 있는 학교다. 교사·학부모·지역 주민 모두가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밤엔 별을 보며 성장하는 행복한 아이들

익산형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마을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정주형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습 위주의 교육을 넘어 자연 속에서 뛰놀고, 마을 주민과 교류하며, 함께 밥을 먹고 자라는 생활 중심형 교육이 이뤄진다.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정책, 인구 반전의 실마리

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으로 가족형 농촌체험캠프(11가구, 40명 참여)를 운영해 도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캠프는 단기 체험을 넘어 장기 유학과 이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학을 왔던 한 가정이 익산에 완전히 정착한 사례도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농촌에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양방향 정책"이라며 "교육을 매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성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향사랑기금 사업 청소년수련관 새 단장

휴식·학습 공간 등 마련 자율·소통 공간 확대

정읍시는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수련관 힘나는 활동공간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정읍시>

정읍시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수련관 힘나는 활동공간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열악한 활동공간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고향사랑기금 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시설 개선 △휴식·학습 공간 마련 △문화 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책걸상과 집기 교체를 완료했다.

새로 마련된 공간은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율학습 △동아리·소모임 활동 △문화·예술 체험 △휴식과 교류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메달 쾌거

펜싱 금1·동1 육상 금1·은1 전국체전 활약 기대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최근 치러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다가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강원 양구에서 열린 '제30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펜싱팀은 두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1일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맏언니 최신희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금메달을 이끌었다. 이어 4일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권영준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익산시청 육상팀의 활약도 이어졌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육상팀은 두 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3일 남자 포환던지기 이성빈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4일 여자 해머던지기 한국신기록 보유자 김태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우리 시 선수들이 전국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자랑스럽다"며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성 인정

신재생 융복합 공모 A등급

군산시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면서, 국비 14억 원 확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일 시 관계자는 "'최우수' A등급 선정은 상위 10% 지자체에만 주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등급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군산시민에게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확보된 국비 14억 원과 지방비와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총 49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주택·상가·공공시설·산단 등 277곳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희갑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 조성

이번 사업은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해 조사료를 재배·급이하는 한우 사육 농가 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가당 2ha 이상 규모의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설치가 완료된 관수시스템은 송수관 매설과 대용량 물탱크(10톤 이상), 7.5마력 펌프, 컨트롤러, 기계실, 센서함 등을 갖췄다.

반경 50m 이상 살포되는 스프링클러를 통해 1대만으로 8000㎡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토양 수분측정 센서를 활용해 토양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관수가 이뤄져 정밀한 수분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가뭄 시에도 동·하계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해졌으며, 열풍을 이용한 원형베일 건초 건조 특허 기술까지 보급해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수입 사료 의존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관수시설 설치로 농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1차 측정

피해보상 근거 활용 15~21일까지

군산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비행장 소음측정은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수행되며, 측정 기간은 군의 훈련 일정을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군의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측정지점은 10개 지점으로 △옥서면 6곳 △미성동 2곳 △소룡동 1곳 △옥구읍 1곳으로 주민협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ANC에서 수행하며, 2차 소음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 작성 및 검증, 조사 결과 주민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만전을 기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상

전북도농업기술원이 지난 4일 주최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정읍 농업인들이 나란히 수상대를 밟았다. 데이터·콘텐츠·온라인 판매를 아우르는 정읍식 디지털농업 모델이 현장에서 실효를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 능력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열린다. 블로그 포스팅, UCC 제작 등 4개 분야로 진행해 생산부터 소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읍에서는 황종운 씨가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방울토마토 재배와 경영 혁신 사례를 발표해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병구 씨는 직접 재배한 정읍 대서마늘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소개하고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라이브커머스 부문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읍이 미래농업과 스마트농업을 이끄는 대표 도시로 자리 잡도록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새보로미 축제, 관광객 '북적'

자원순환 프로그램 국가유산 야행 낮·밤 다른 매력 호응

9월의 첫 주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가 개최됐다.

'새로보미 축제'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80개의 다채로운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특히, 고장 나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 재활용품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인 '정크아트'전시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더불어, 환경부 주최 정부 공식행사인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지난 5일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진행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제17회 자원순환의 날'행사는 수도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개최지 공모에서 세종시, 청주시, 양평군과의 경쟁에서 이룬 쾌거다. 낮에는 새로보미 축제가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렸다면 밤에는 김제 국가유산 야행이 조선의 밤으로 3일 동안 특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김제의 심장이자 역사의 터전인 사적'김제군 관아와 향교' 및 전통시장 일원이 사흘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특별한 무대로 황홀함을 선사했다.

또, 김제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한 '100년 먹거리 장터'는 시장 상인과 청년단체가 직접 준비한 따끈한 전통음식, 다채로운 간식이 한자리에 모여 김제의 미각 여행을 완성했으며 플리마켓에서는 시민 셀러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생활 소품을 판매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저녁의 장터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로보미 축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배움의 축제,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로 승화시킨 역동적인 축제, 환경축제의 모델이 되는 축제,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제였다"면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시민 자긍심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나는 의미있는 주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김제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가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청소년 미래 지원 지역사회 공감 확산

고창군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도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 중 고창군을 포함해 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현장 발표를 거쳐 현장평가단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기부자의 공감이 쏘아올린 지정기부 조기 모금 완료'를 주제로 지난해 추진된 지정기부 사업의 조기모금 완료가 긍정적 사례로 부각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정기부사업인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 영선고 야구부 지원 사업이 기부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기반으로 단 2주 만에 목표액 20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표액 6000만원을 6개월만에 조기 모금을 완료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소년 대상 사업을 비롯해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활용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에 맞춤형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창을 알리고,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특색있는 기부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 본격화

AI 기반 인식 기술 이용 노동력 절감 기대

부안군은 축산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은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000만원(군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스마트 축산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는 AI 기반의 인식 기술을 이용해 소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양의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방식이며,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고 사료 급이량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사료 효율 제고 △노동력 절감 △출하월령 단축이다.

급이량 조절을 통해 적정량의 사료 공급으로 소가 먹다 남기는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사료 급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부안군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 질병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농가를 살리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기술 보급 사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2학기 장학생 접수

8일~10월 10일까지 반값등록금 등 4개 분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2025년 2학기 장학생 신청 접수를 위해 각종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장학금 지급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주간이며, 반값등록금, 다자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4개 분야에 걸쳐 신청받는다.

특히 2025년 1학기 미신청자도 1~2학기 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전액 면제자도 소득구간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학생들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반값등록금은 국내 대학교 1~6학년 재학생에게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 중 국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생활비 100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특기장학금은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대회 중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 입상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부안군 소속 단체에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내 대학교 비진학자 중 창업·취업 준비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영농후계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학원등록비 12개월분 중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이번 신청 기간에는 1학기 장학금 미신청자도 1~2학기 장학금을 동시 신청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누락 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롯데웰푸드, 서울서 팝업스토어 운영

고구마 제과 12종 출시 기념

고창군이 롯데웰푸드와 '고창 고구마 시리즈' 제과 12종 출시를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주요 역세권 3곳에서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5~7일 코레일용산역, 8~10일 합정역, 11~13일 잠실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코레일유통, 서울교통공사 '서울 pick'과 협력해 진행된다.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로코노미(지역+경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들에게 '고참(창) 꿀맛이구마!'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포토존, 룰렛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고창 농특산품인 복분자즙, 고구마 말랭이, 수박음료, 땅콩 가공품 등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제품은 카스타드·마가렛트·빈츠·빵빠레 등 롯데웰푸드 대표 상품에 고창 꿀고구마의 달콤함을 담아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지역을 살리는 우수 사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약 추진 이상無 이행률 95.1%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4일, 공약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25년도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 점검 결과, 총 62개 공약사업 중 완료된 12개를 포함해 59개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돼 공약이행률은 95.1%로 나타났으며, 일부 추진 사업 3개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 변화 및 재정 여건 등으로 변경된 공약사업은 △지능형 첨단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 인증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결과는 김제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마포구,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전북 고창군과 서울 마포구가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자매도시 바로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포구 방문단이 고창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체결된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정책과 문화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복지·관광·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품은 고창군과의 교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마포구와의 인연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신뢰와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자원순환의 날 맞아 텀블러 기부

고창군이 '자원순환의날(매월 6일)'을 앞두고, 지난 4일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기부받은 텀블러를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고창군이 지난달에 추진한 '텀블러 기부 캠페인'의 결과물로, 군민과 공무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새 텀블러와 물병을 기부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사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민이 참여하는 범군민 친환경 실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 과장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한 작은 나눔이 환경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나눔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보로미 축제 방문객 대상 중대재해 ZERO 캠페인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잔디광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새로보미 축제 참가자와 현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수칙 안내 △시민안전보험 등 생활 안전 제도 홍보와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성주 시장은 "안전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전을 습관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축제와 각종 행사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김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9일까지 어업인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 추가 모집

부안군은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결과 금년도 군에 배정된 사업물량에 못미쳐 잔여 사업물량에 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신청서 제출과 자부담 금액을 예납하면 된다.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은 어선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부안군 관내 어업인·허가를 보유한 어선 소유자로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1,870벌의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계획으로 있으며 구명조끼 구매가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군은 2차 추가 신청을 통해 누락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신청자격과 요건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10월 19일 이전에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존 조끼보다 착용이 간편한 팽창식 제품의 보급 확대를 통해 어업인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예술회관, 9월 무료 영화 '하이파이브' 18일 상영

부안예술회관은 9월 무료 영화 '하이파이브'을 오는 18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하이파이브'는 장기이식으로 우연히 각기 다른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액션 영화다.

영화 내용은 의문의 장기 기증자로부터 각각 심장과 폐, 신장, 간, 각막을 이식받은 다섯 사람이 건강해진 몸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초능력이 덤으로 딸려 온다.

한편 취장을 이식받고 특별한 능력을 얻게 돼 절대자를 꿈꿔온 새신교 교주 영춘과 맞서기 위해 한 팀으로 결성해 의기투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 이재인부터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 오정세, 신구 등 개성파 배우들이 액션 장면을 직접 소화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매월 영화를 무료 상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보다 쉽게 최신 영화를 접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5년 9월 8일 월요일

남원시 '면접수당' 큰 호응…추가 예산 확보

높은 참여율로 상반기 조기 소진
참여자 162명 중 40% 취업 성공

남원시는 작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면접 수당 지급 사업'이 구직자들의 높은 참여로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의 하나로, 구직자가 면접 과정에서 부담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것이 면접 기회 확대와 취업 성과로 이어지면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총 162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3건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40%가 넘는 65명이 취업에 성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면접 수당 지급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남원시만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면접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일자리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접수당 지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남원퀵스타트사업단 공식 누리집(namwonqui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서 필리핀 국가대표팀 7번째 전지훈련

군·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 지원
스포츠 외교 성과로 이어져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이 올해로 일곱번째 순창군에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이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이하 필리핀 팀)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마이클 엔리케즈 감독을 비롯해 필리핀팀 선수단 1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최영일 군수는 환영 인사와 함께 훈련용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필리핀 팀은 지난 8월 24일 순창군에 도착해 9월 12일까지 19일간 머무르며 전지훈련을 진행한 뒤, 문경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필리핀 팀은 지난 2018년 첫 방문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 순창군을 찾았다. 특히 2022년 순창군과 필리핀 소프트테니스연맹 간 스포츠 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들이 꾸준히 순창을 방문하는 이유는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의 전폭적인 스포츠 기술 지원과 함께, 순창군의 훈련 전담 인력 배치와 스포츠 연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 덕분이다.

또한, 필리핀 팀은 2023년 두 차례의 전지훈련을 진행한 이후 동남아시안게임에서 소프트테니스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며, 순창 전지훈련의 효과를 입증했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글로벌 전지훈련팀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외교부 공모 '공공외교 우수사례'에서 외교부장관상을, 시도지사협의회 공모 '지방외교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국제 교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모노레일 소송 항소심 대법원 상고 결정

"지방재정 위협 행위" 규명 기대
의회와 지속 협의해 지역 갈등 방지

남원시가 최근 모노레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 남원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상고 결정에 있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이용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발생한 점△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상고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원시는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이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신중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있는 점△실시협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시행사가 1여년간 경영에 따른 수익저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을 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군 금고 운영 금융기관 농협·전북은행 지정

2026년부터 4년간 군 자금 관리
재무 안정성·편의성 등 종합 평가

완주군은 내년부터 4년간 군의 주요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1순위에 NH농협은행, 2순위에 전북은행을 지정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완주군의 세입·세출금을 비롯한 주요 자금을 관리할 군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1순위에 NH농협은행, 2순위에 전북은행을 지정했다.

이번 금고 지정은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의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서 접수, 제안서 평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평가 항목으로는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심의 결과 NH농협은행이 1순위, 전북은행이 2순위로 선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완주군의 주요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금고 지정을 통해 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에도 함께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공정한 금고 운영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난 4일 일자리박람회를 둘러보며 취업 역량을 점검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청년도전 참여자들, 박람회서 진로 탐색

30여명 일자리박람회서
구직 정보 습득·역량 점검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4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완주군이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행사에 참여한 30여명 이날 채용관, 컨설팅관, 체험·홍보관 등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용관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면접을 보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면접 클리닉, 직업카드 상담, MBTI 성격·적성검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했다.

또한 체험·홍보관에서는 취업 메이크업, 이미지 캐리커처, 스트레스 진단 등 청년들의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고용지원 정책 정보도 접할 수 있었다.

군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올해는 전년대비 30%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8개 기수 120명 참여를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4개 기수 46명이 과정을 수료했고, 30명이 교육에 참여 중이다.

군은 오는 9월 중순 개강 예정인 단기(5주) 과정의 교육생을 현재 모집 중이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구직관련 활동이 없는 만 18~34세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청년메카완주' 홈페이지 내 구글폼 또는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며, 과정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11일 제19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 개막

운봉 국악의성지서 열려
헌례·헌가·헌무 진행

남원시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운봉읍에 위치한 국악의성지(악성사)에서 '제19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을 연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뿌리를 기리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주요 무대로, 가왕 송흥록 선생, 국창 박초월 선생과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안숙선 명창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다. 특히 대제가 열리는 운봉 지역은 옥보고 선생이 50여 년간 거문고를 연구하며 국악의 기반을 다진 역사적 장소이다.

이번 국악대제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의 정화무를 시작으로 각 제관의 헌례, 명창·명인의 헌가·헌무 및 국악인 묘역참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여성단체·군민 500여 명 참여
양성평등 유공자 23명 표창

순창군은 지난 5일 장애인체육관에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23명의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여성단체 11명, 읍면 지도자 11명, 공무원 1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지금은 소통시대 성평등사회'란 주제로 개그우먼 김보화 씨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로비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아동·여성보호연대의 폭력방지 홍보 캠페인과 여성취업상담센터의 구인구직 상담 창구가 운영됐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신혼 여성 풍진 항체검사·예방접종 지원

예비부부 여성도 가능
항체 없을 시 접종 1회 지원

완주군이 안전한 임신을 돕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항체검사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풍진은 발열과 발진, 림프절염을 동반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임신 초기 산모가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심장 기형, 청력 손실, 백내장 등 선천성 풍진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건소에서 풍진 항체검사(IgM, IgG)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MMR(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을 1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해 혼인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풍진항체 검사 결과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산림조합, 여성단체 초청 탄소중립실천 '초록 힐링' 교실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은 최근 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 임원 및 회원 40여명을 초청,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초록 힐링' 교실을 운영했다.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별 임원들과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함께하는 이번 '초록 힐링' 교실 은 나만의 반려식물 입양하기 프로젝트로 진행 되었다.

이날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본식물의 습성 및 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분갈이 요령 등의 산림경영지도가 있었다.

완주군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였다"며 "자연물을 통해 심미적 감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일에 산림조합과 여성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당부

순창군은 최근 관내에서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인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공무원 명의와 공무원증을 위조해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뒤,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특히 문자나 전화에서 기관명 또는 공무원 이름을 거론하며 접근하더라도, 명함이나 공무원증 사진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어떠한 계약 체결 시에도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량 물품 구매 요구, 업체 알선 및 선금 요구 등은 모두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한편, 군은 마을방송, 이장회의,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적극 알리고 있으며,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쌍치 금정 체육공원 파크골프장으로 재탄생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쌍치 금정 체육공원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한 쌍치 금정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군은 오는 10월 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그동안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 중이다. 이 곳은 총면적 14.952㎡에 달하는 천연 잔디 18홀 규모의 구장으로 조경석 의자와 관리동, 스크린 골프 시설 2개소를 갖추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무주 칠연미술관, 이윤승 작가 산악사진 전시회 개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 입주 작가 전시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25일까지는 '이윤승 작가의 산악사진 전시회, "덕유산 겨울의 속삭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겨울로 뒤덮인 덕유산에 오르며 마주했던 순간들과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은 총 30여 점으로 덕유산의 눈 덮인 능선과 눈꽃이 만발한 숲 사이로 새겨진 작가의 시선과 감성,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윤승 작가는 "덕유의 겨울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따듯한 위로"라며 "덕유산 겨울의 속삭임을 들으시며 더위를 잊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前)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지낸 이윤승 작가는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5~6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무주군 관광협의회장, 무주군사진가협회장,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원평지 들소리 가치규명 학술대회 열어

진안군은 지난 5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안 원평지 들소리 가치규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진안 원평지 들소리 및 농요 가치 발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진안 마령면 원평지 마을의 전통 농요인 들소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진안 원평지 들소리는 마령면 원평지마을의 오길현 외 원평지 들소리 보존회를 중심으로 논매는 소리 8곡이 보존 및 전승되고 있으며, 지역 농경문화와 생활사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치 규명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된 것이다.

토론은 전남대학교 이용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목포대학교 나승만 명예교수, (전) 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 손태도 (전) 판소리 학회장, 진안문화원 부원장 이상훈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2025 홍삼축제 실무추진단 2차 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5일 군청 강당에서 2025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차 실무추진단 보고회를 가졌다.

주영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진안군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이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홍삼 축제 담당 임무의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치러진 1차 보고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2차 보고회에선 이후의 진척사항과 문제점 해결 대책 등 홍삼 축제를 위한 많은 발전 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실무추진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성공적인 홍삼 축제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빈틈없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2025 진안홍삼축제가 방문객에게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안길 수 있게 하고, 진안홍삼의 우수성 또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장수군은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장수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 조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권 할인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동일하게 15%로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기존대로 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번에 관내 일부 면 소재지 농협 농자재판매소와 장수읍을 제외한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가 새롭게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돼 생필품과 식료품 등 일상 소비 전반에서 상품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수사랑상품권'은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이·미용실, 병·의원, 마트 등 지역 내 1,100여 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가맹점 목록은 장수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사랑상품권은 군민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민생경제 정책이다"며 "이번 할인율 상향이 장수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 '총력'

T/F팀 구성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등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에서는 △기본소득사업 추진 및 총괄(농업정책과), △재원 마련(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총괄(인구활력과) △무주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총괄(산업경제과)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인구는 2만 2천여 명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시범사업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은 올 하반기 중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6개 군이 확정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첫 입국

5~8개월간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난 해소 기대

지난 4일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선다 <사진=임실군>

임실군에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함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첫 입국 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2월 임실군과 라오스 정부 간의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MOU)에 따라 선발됐으며, 이날 열린 환영식에서 고용주와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마약 검사 및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관내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에서 8개월간 파종·수확 등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에서는 금융교육과 계좌 개설을 도와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을 수령·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의 첫 라오스 입국 계절근로자들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라오스와의 국제 협력 확대와 기존의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해당 국적 근로자 입국 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 수요 증가를 대비해 5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고용 희망 농가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고용 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의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에 대한 이해도 증대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오는 9일과 12일 오수면사무소,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향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 범위가 직계가족과 허용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근로자 선발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인구교육으로 길 열다

'인구변화 이해와 미래준비' 주제

진안군은 지난 5일 군청 강당에서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우택 정책연구실장을 초청해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준비'라는 주제로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해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우택 실장은 "인구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며 합계출산율 0.72(2023년), 0.75(2024년)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지방인구감소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인구문제를 설명했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 병역자원 및 학령인구 축소,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짚었다.

특히, 단순히 출산 장려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를 더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와 문화적 요인이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생활인구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구체적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를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군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2025년 신규 공무원 임용식 개최

행정 등 9개 직렬 26명 합격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이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공무원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임용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2025년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8급 및 9급 공채 시험 최종 합격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정직 10명, 간호직 6명, 농업직 2명 등 9개 직렬의 유능한 인재들이 실무 수습 신분으로 공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임용식은 신규 공무원과 가족 50여 명을 초청하여 공직에 입문하는 아들, 딸의 자랑스러운 공직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심 민 군수는 일일이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장과 공무원 실무수습증, 꽃다발을 건네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1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황리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4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제1회 장수군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관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을 다지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가맹단체와 협약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종목별로는 론볼과 파크골프가 사전 경기로 치러졌으며, 본 대회에서는 보치아, 좌식배구, 미니골볼, 슐런, 한궁, 족구, 레이저 사격, 단체 공 굴리기 등 다양한 종목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인식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나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필리핀 마라곤돈시, 계절근로자 연장 협약

불법체류 방지·복지 향상 등 합의

무주군이 지난 7일 필리핀 카비테주 마라곤돈시(시장 로렌스 아르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연장 절차를 밟았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은 2022년 8월 18일 처음 체결된 양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상호 간 협약에 이의 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두 도시 간 신뢰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무주군청에서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와 로렌스 아르카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합법적 선발·송출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체류 방지, △근로자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 △근로자의 권익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 환경 및 생활 여건을 함께 점검했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 개설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은 2026년 농업 전문교육 과정 개설에 앞서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대학과 농군사관학교 교육생을 비롯해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들은 설문을 통해 관심 있는 교육 분야와 희망 작목, 교육 수준(기초·중급·심화), 교육 형태(장기·중기·단기), 희망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강사·방법에 대한 자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를 바탕으로 식량·채소·과수·특용작물·축산·양봉·가공·치유농업 등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과정을 설계하고, 장기·단기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전북인재개발원, 제43회 HRD콘테스트 장관상 수상

사회공헌, 신입 교육과정에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소속 박정환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4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 개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소통·리더십 교육과, 챗GPT · 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우수 사례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21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면평가를 거쳐 강의경연 분야 7개 팀, 교육과정 개발 분야 4개 팀 등 총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박정환 주무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디지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AI 및 과학기술 기반 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소속 박정환 주무관이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전주시>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제 취약계층에 수정과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이 지난 5일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90만원 상당의 수정과 10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태엽 대표는 4대째 이어온 인삼 재배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삼 가공품을 생산하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박람회 축제 등 적극 참여해 김제 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꾸준히 홍삼액과 인삼식혜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지역사회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정성을 담아 만든 수정과가 많은 분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 인삼 농업의 가치를 지키면서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임실시니어클럽, 종이팩 재활용 화장지로 취약계층 지원

자원 순환·기부 동시에 실천

임실시니어클럽(관장 김윤호)이 지난 3일 공익형 '종이팩 재활용 사업'을 통해 모아온 종이팩을 화장지 1,050롤로 교환해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전달된 화장지는 신평면과 운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임실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종이팩 재활용 사업은 우유팩과 멸균팩을 세척, 소독,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재활용 화장지로 교환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학성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원 순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 와푸 축제 앞두고 음식 품평회 개최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회장 박병주)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앞두고 음식 품평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축제 당일 선보일 음식 메뉴의 맛과 품질을 확인하고, 부스 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회에는 주민자치위원 20여 명과 고산면 직원들이 참석해 메추리, 삼겹살, 두부김치 등 다양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며 완성도를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메뉴 구성과 위생관리, 손님 응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축제장을 찾을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재료 손질부터 조리, 플레이팅까지 꼼꼼히 준비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어르신, '신바람 체조대회' 앞두고 맹연습

완주군의 어르신들이 오는 27일 열리는 '제13회 건강 한마음 씽씽쌩쌩 신바람 체조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체조대회는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연계 행사로, 고산자연휴양림 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된다.

매년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 대회는 참가 어르신은 물론, 가족과 군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대회에는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을 수강하는 13개 읍면 대표팀 260여 명이 출전한다.

이에 완주군보건소는 최근 각 경로당을 찾아 연습 중인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건강과 안전 관리에 대한 조언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다고내푸드, 익산 취약계층 아동에 선물 전달

익산시는 5일 ㈜다고내푸드(대표이사 김강용)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물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기탁품은 부침가루, 갈비양념, 콩기름 등 명절 상차림에 꼭 필요한 식재료로 구성돼 실용성과 정성을 더한 선물꾸러미 100상자(300만 원 상당)다. ㈜다고내푸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풍성한 추석을 선물하고자 물품을 기탁했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을 비롯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강용 대표는 "아이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고내푸드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선물세트를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산림조합, 국산목재로 제작한 학습기자재 나눔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은 지난 4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후원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학습기자재(테이블, 좌탁)를 관내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사업은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좌탁으로 했으며 상반기에 미리 신청을 받아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나눔을 진행했다.

산림조합은 "국산목재의 특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증대를 통해 생산자인 산주와 농산촌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 산림경영을 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은 "숲 가꾸기를 활성화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운봉읍 무인 아나바다 마켓, 주민들 기부문화 확산 동참

남원시 운봉읍이 무인 아나바다 마켓을 운봉 휴 행복누리센터에서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무인 아나바다 마켓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교환하고 기부·취득하는 자원 공유의 장으로, 현재 활발히 이용 중이다.

기부 물품은 식품류를 제외한 의류,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의 물품 중에서 아나바다 마켓 보관함에 진열이 가능한 물품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휴 행복누리센터 운영시간 내에 물품을 가져와 기부물품 목록을 작성하면 되고, 물품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물품을 가져가면 된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무인 아나바다 마켓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一事一言〉

아이들에게 윤석열·김건희를 토론하게 하라(1)

강민정
전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혐의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지하부터 꼭대기 층까지 범죄로 꽉 채운 범죄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층마다 다른 종류의 범죄혐의들이 가득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정당 공천 개입, 각종 공공기관 인사 개입, 국가사업 개입 등 국정농단은 물론, 심지어 세계 문화유산을 유용하고 훼손하는 황후놀이까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혐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참으로 꼼꼼하고,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시험당한 기분이다. 3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상당히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또 어떤 범죄혐의가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김건희 일가 범죄혐의 소식에 경악과 분노가 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법을 우롱하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집단적 내성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 첫 번째요, 또 다른 걱정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SNS를 비롯한 온갖 다양한 매체들이 사방에 널려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조처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긴 수사과정이 끝난 후 또 더 긴 사법적 처리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빨리 흡수하는 아이들에게는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교육적 경험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정한 것을 교육과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시간표 위에 표시되는 교과목 수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학습효과를 유발시키는 또 다른 교육과정인 잠재적 교육과정도 신경써야 한다.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아이들 간 교우관계나 학급분위기, 교실 환경이나 학교문화 등이 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아이들이 단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교육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이들에게 끼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 성인들은 물론 아이들 역시 교과서로는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성인들은 그 무수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떤 교육적 개입이 없다면 쉽게 편향에 빠지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범죄혐의들은, 아이들이 배워온 교과서와 너무 다른 현실, 너무 다른 세상을 아이들에게 날것으로 쏟아내고 있다. 보통 사람의 범죄행위들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나라 대통령 부부의 상상초월 범죄행각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특히 아이들 삶과 직결된 국가교육위원장과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은 아이들에게는 더 특별한 일로 다가갈 수 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토론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혹시나 갖게 될 잘못된 정보나 판단들이 교정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속에서 혼자 혹은 소수 또래들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사의 생각을 주입하지 않되 사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다뤄야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심지어 법적 제재대상으로 삼는 일이 벌어져 왔다.

200명 넘는 또래나 선·후배벌 학생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세월호 사건 때,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계기수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교사는 징계에 회부하겠다는 공문을 뿌린 곳이 대한민국 교육부다. 대통령 탄핵선고 시청을 금지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를 옭죄었던 것이 대한민국 교육현실이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세월호 사건이나 대통령 탄핵을 아이들이 모를 수 있나? 없던 일이 되나? 오히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주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은 그 사건이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때론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이런 커다란 사회적 쟁점일수록 오히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며, 정치적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일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본궤도 오른 새만금, 이제는 속도가 관건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사업이 대규모로 반영되면서, 지체됐던 새만금 개발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 31건, 총 1조455억원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는 당초 부처 예산 편성액보다 3,026억이 늘어난 수치로, 정부 예산 반영률도 전년도 99.4%에서 무려 140.7%로 상승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일궈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 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비,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사업 등이 반영돼 그동안 우려가 컸던 수질 문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조성 예산도 포함돼, 새만금이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라 미래형 복합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 지연됐던 핵심 기반 사업에도 추진 동력이 붙었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사업, 새만금 수목원 조성,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농생명산업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것이다.

아울러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사업도 요구액 전액이 반영돼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신항만 건설, 인입철도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면 새만금은 국내외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부상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번 정부 예산 반영의 의미는 단순히 금액 규모에 있지 않다. 향후 6년간 7조 3천여억이 집중 투자되는 만큼, 새만금은 첨단산업과 친환경 인프라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변모할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과도 직결된다. 더 나아가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신성장 전략을 실험할 최적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예산 확보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그동안 새만금은 사업 지연과 정책 혼선으로 수많은 기회를 놓쳐 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과 지역 상생을 병행하는 정교한 전략이 절실하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관련 부처는 서로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내려놓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 단계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하며 특히 신항만 개항 준비, 수질개선 대책, 신산업 단지 조성 등 핵심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 전략이자, 세계로 뻗어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번 예산 반영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만금을 미래형 경제수도이자 글로벌 산업·생태·문화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협력해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경기전 일월오봉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일반회화, 산수화
-지정일 - 2017년 3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풍남동3가, 경기전)

▲오늘의 시

만남 / 정 채 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 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 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순천 출생. 동국대에 재학 중 1973년 동화 '꽃다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월간 '샘터'에서 주간, 편집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물에서 나온 새' '오세암' '스무살 어머니' '생각하는 동화'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동화 장르를 크게 개척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사후 10년 만인 2011년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정채봉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공동체' 만든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재편 속에서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며 정읍시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시민 스스로가 복지의 주체가 돼 이웃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읍형 함께 돌봄' 모델은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는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1419명에 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약과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 그리고 6300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더해져, 정읍시의 복지안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짜이고 있다.

민관협력 촘촘한 복지그물
카카오채널 개설…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기 상황 알려
중장년층 대상 '온(溫)온(ON)' 사업 실시

'정읍형 복지안전망'의 힘, 1419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카카오채널이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가에 달려있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통장, 시설종사자,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다양한 생활업종 종사자 1419명을 '정읍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자의 생활 반경과 업무 영역에서 복지 레이더 역할을 수행하며 실직,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즉시 행정에 알리는 '복지 파수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카카오톡 채널 '정읍이웃 복지동행'을 개설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어 기존의 신고 체계가 미치지 못했던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촘촘하게 구축된 발굴 시스템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올해 8월까지 정읍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343가구를 발굴해 총 977건, 8억 22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 672건(6억 3900만원) △긴급의료비 73건(1억 4800만원) △연료·주거비 등 232건(3500만원)이 지원돼 많은 가정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

또한, 법적 지원 기준을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시 지정기탁금을 연계하는 등 제도의 빈틈까지 메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독사 예방부터 생활 밀착형 지원까지… '사람 중심' 맞춤형 복지사업 활짝

위기가구를 발굴한 이후에는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읍시는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온(溫)온(ON)' 사업은 사람 중심 복지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온(溫)온(ON)' 사업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열고, 밀키트와 밑반찬 가게 이용권을 제공해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포기했던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철 과일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 6개의 세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2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밑반찬 및 계절김치 지원 △가정의달 선물꾸러미 및 명절 상차림 지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은 물론, △연지동의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통한 비대면 안부 확인 △상교동의 '홀몸가구 안정지킴이' 사업을 통한 안전기기 지원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고독사 예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전등 설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및 아우터 지원(내장상동)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나눔과 봉사로 피어나는 '같이의 가치', 시민이 만드는 따뜻한 정읍

정읍시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2022년 10월 문을 연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이러한 시민 참여 나눔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내장상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등 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작해 확대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채우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열린 나눔의 공간이다.

개인과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은 무려 5억 832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7만 8129세대에 4억 7433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공유냉장고는 지역 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이웃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문화는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 7월에는 폭염 취약계층 69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했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728개소 경로당에 읍면동의 도움으로 수박과 커피를 배송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또한, △원예농협의 옥수수 50박스 기탁 △전북은행의 시원키트 50박스 기부 등 지역 기업과 단체의 시기적절한 후원은 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한부모가족 'FUN FUN 가족캠프' △농소동 대한약국의 현금 300만원 기탁 등 각계각층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있다.

나눔과 더불어 정읍시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자원봉사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6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재난 현장 복구부터 소외계층의 일상 돌봄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화재나 수해 발생 시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고, 토사로 뒤덮인 마을을 정리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착한한끼 나눔', '제철음식 나눔'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말벗이 되어주며 고독사 예방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교육과 지친 봉사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계획을 통해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골고루 원하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가 단순한 빈곤 문제를 넘어 돌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해답임을 확신한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함께 돌봄'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